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

중
진
공
뉴스레터

중진공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쫓겨

뉴스

2023. 05. VOL20

SPECIAL THEME



Region
Re:Birth

중진공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풍긋

중진공 뉴스레터
2023.05 VOL.20

Special Theme

지방소멸,
지역중소기업에
답이 있다

- 03 DASH BOARD
 - 지방소멸 관련 인덱스
 - 지역중소기업 관련 지표
- 05 INSIGHT REPORT
- 07 전문가 칼럼
 -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
- 08 중소기업in
(주)제아이엔지
세계 1등 향하는 수소전문기업,
지역산업성장 지원이 숨은 공신
- 10 중진공 지원사업
- 12 플러스 지원정보
- 14 지역산업을 콕! 집어 쏙! 키워주는
'규제자유특구'
- 15 핫템꿀템! 지방소멸 위기극복 솔루션

New Wave

5월의 경제 포커스

- 16 Hot! 키워드
- 17 경제 이슈 읽기
- 18 Monthly 경제 동향
- 19 DASH BOARD
금융경제지표 모니터링



Cover story

지방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DASHBOARD

지방소멸 관련 인덱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경기(2)

가평군 연천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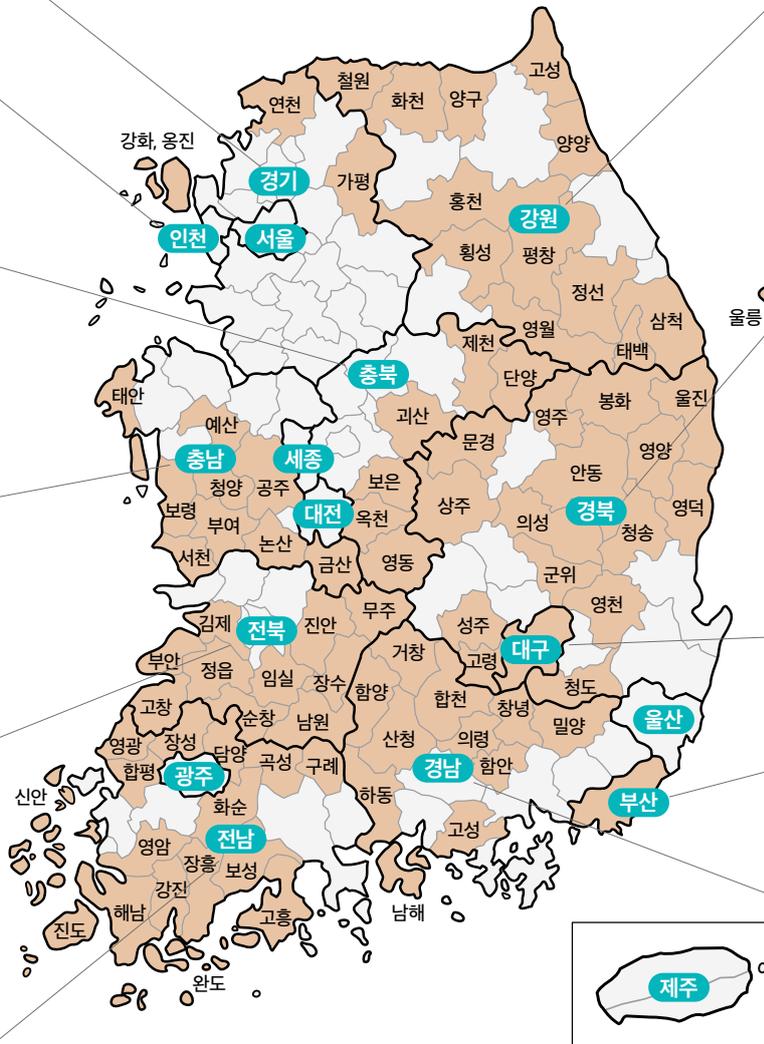
남구 서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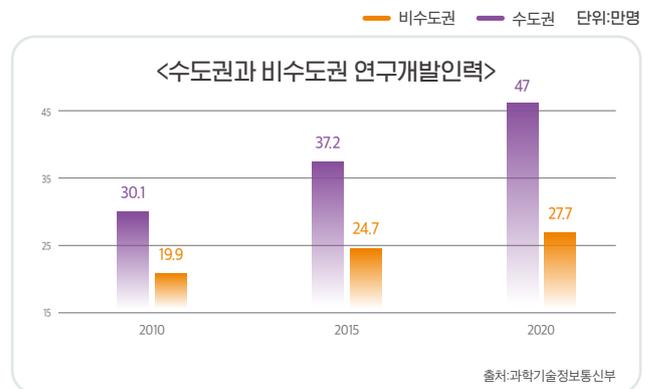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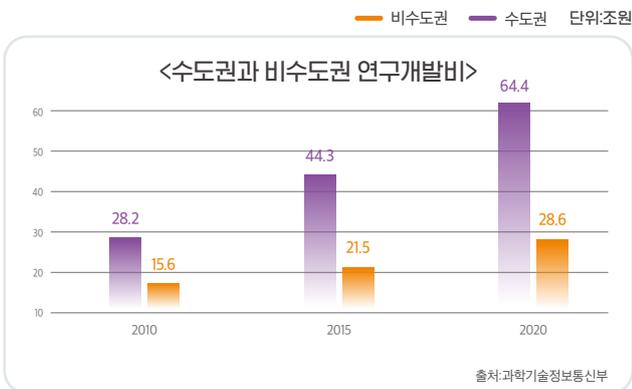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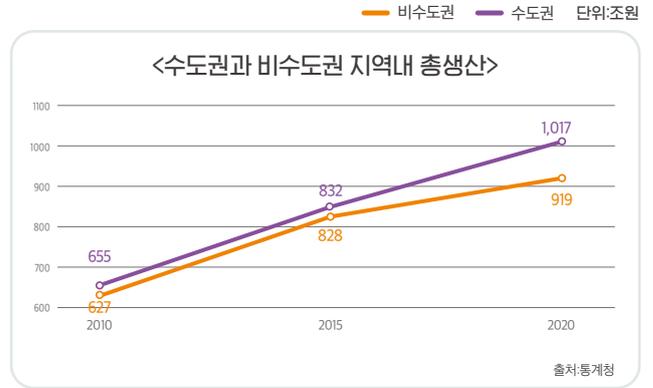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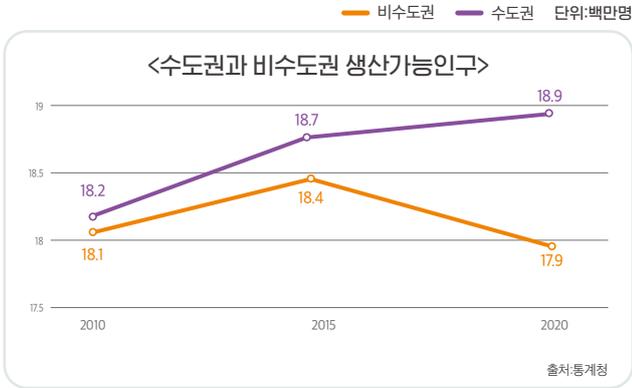
출처 : 행안부 홈페이지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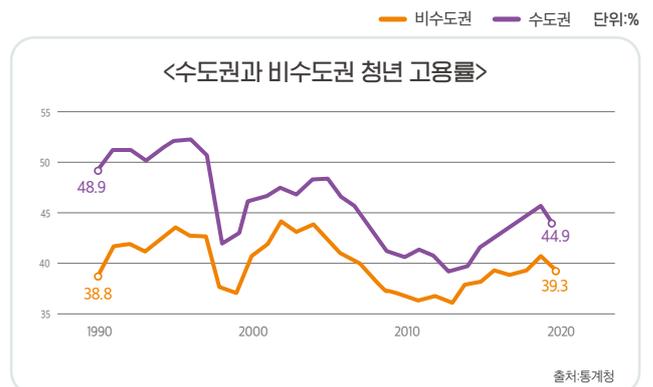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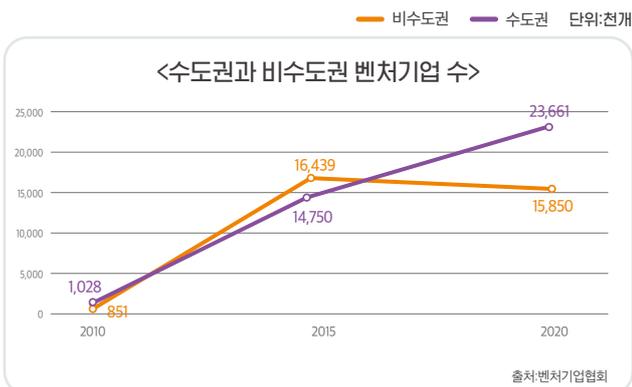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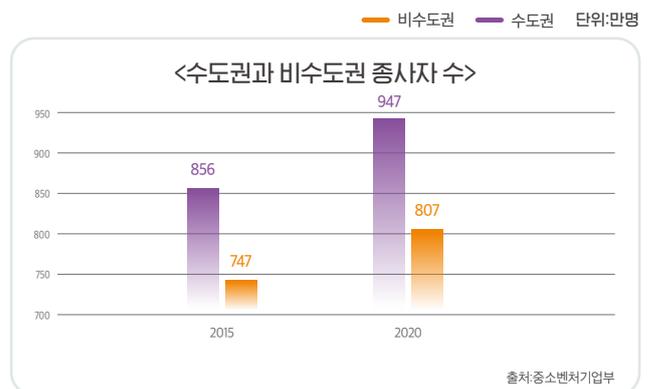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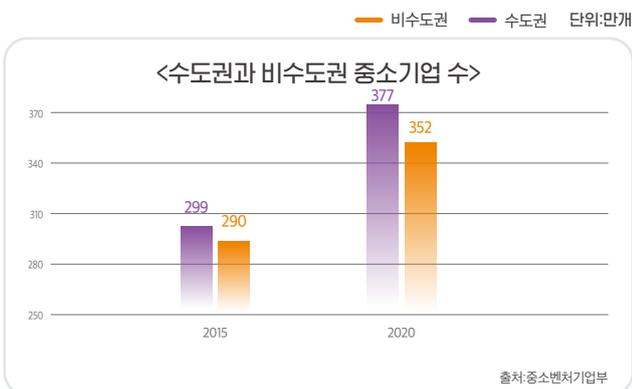
지역중소기업 관련 지표



지역 현황과 문제점



지역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INSIGHT REPORT

최근 지방소멸 이슈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정책 과제(출처: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 지역 기반 예비유니콘*과 지역 경제

- 지역 신산업과 연계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비유니콘이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비상장 기업으로 혁신성·성장성을 갖추거나 지역 스타 기업 중에서 선정

☑ 지역 예비유니콘 현황과 특징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예비유니콘 70개 중 12개(17%) 비수도권에 위치, 유니콘 기업(6%) 대비 비수도권 비중이 높음

- 수도권 예비유니콘의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평균 누적투자유치액은 각각 190억 원, 104명, 299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의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평균 누적투자유치액은 각각 45억 원, 72명, 223억 원
- 수도권 예비유니콘의 66%는 IT 플랫폼·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이며, 비수도권 예비유니콘 중 83%는 제조, 바이오, 하드웨어 업종
- 비수도권 예비유니콘은 기술, 고급·전문인력 등의 기반을 갖춘 대전, 경북, 대구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매출 구조는 B2B 중심

☑ 지역 예비유니콘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이 더 나오려면 지역 내 창업 활성화, 기술 기회의 원천인 신산업 육성, 지역 기반 벤처투자 확대가 전제 요건
- 지역 스타트업이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 지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네트워크 강화, 지역특화 신산업·벤처투자정책펀드 조성, 지역 기반 벤처투자자 육성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출처: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전국 성장세 하회

- 7개 권역별 RECI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전국 GDP 성장세를 계속 상회, 반면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은 전국 성장세 하회
- 권역별로 경기변동성을 비교하면 제주권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의 순서로 변동성이 큼
- 이는 제주권은 경제규모가 작은 점에, 대경권, 동남권은 제조업 및 수출 비중이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각 지역의 경기변동 흐름과 전국 경기와의 상관

관계를 보면 인천, 경기, 부산, 충북은 전국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세종, 대전, 전남, 경북, 충남은 상관관계가 낮음

☑ 대내외 충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충격이 컸던 지역은 울산, 제주, 경남 및 부산지역 순이며, 울산 및 경남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주 및 부산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기간 중 울산과 경남지역은 기계 운송장비, 기타 제품 제조업이,

제주와 부산지역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업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분석

- 경북지진('16년 9월, '17년 11월) 시에는 '16년 4/4분기와 '17년 4/4분기의 경북지역 음식숙박업 RECI가 큰 폭으로 하락, 광주 아파트 붕괴('22년 1월) 시에는 광주지역 분기별 RECI가 '22년 1/4분기와 2/4분기에 급격하게 하락

*지역경기상황지수(RECI: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index, 이하 RECI)는 각 시도의 분기별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이 최근 개발한 종합지수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출처: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국 시군구의 절반

- '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에 이룸, '05년 33곳에서 '15년 80곳, '20년에 102곳으로 증가
- 불과 2년이 조금은 넘은 2022년 3월 시점에 과반을 넘어섬.
-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들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군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에는 소멸고위험지역이 45곳으로 '20년 대비 무려 23곳 증가
- 신규소멸위험지역들은 제조업쇠퇴 지역(통영시, 군산시 등)과 수도권 외곽(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으로까지 확산, 지방소멸 위험이 양

적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 심화 단계로 진입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정의.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이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 지수 값이 0.2 미만(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1/5 미만)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 지역 일자리 양극화 현상 확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자리 질의 불평등이 확대되며, 젊은 고학력고숙련 계층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제조업 쇠퇴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

- '10~'19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20대 청년층은 60만 명이 넘는데, 이는 전체인구 유입 규모(20만 명)의 거의 세 배 규모에 달함
-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인적자원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지속가능성까지 위협

☑ 대안적 일자리 전략 마련 시급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의 혁신, 공공·민간 연구소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통합을 강화하고, 원·하청구조 개선,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등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 필요

INSIGHT REPORT

최근 지방소멸 이슈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필요성(출처:KBI중소기업연구소 연구보고서)

☑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의 핵심적 역할 담당

- '21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48.7% 수준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 상회
- '20년 기준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19.7%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수출 평균을 상회하는 데 기여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간의 격차 발생

- 중소기업의 51.3%, 중소기업 종사자의 58.7%, 중

- 소기업 매출액의 58.2%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
- 비수도권 내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5% 이상 집중된 경남, 부산, 경북과 1%대 수준의 울산, 제주 등으로 나뉘어 분포 불균등
- '19년 기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57.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53.6%가 수도권에 집중
-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매출, R&D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발굴 필요
- 지역산업 성장의 핵심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이고, 결국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그 성장케도를 함께 함

☑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

- 지역 창업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
- '지방소멸-경제 양극화-기업 활력 저하'의 악순환적 연결 고리를 끊는 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인프라 지원 필요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출처: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근 청년창업은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간 비중 및 업종구조 격차가 커지는 상황

- 서울 강남구(4,438개)와 경북 영양군(21개)의 청년창업 수 격차는 211.3배에 달함
- 수도권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기술형 제조업 종과 생산자서비스 청년창업이 높은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저위-중저위기술형 제조업과 유통·개인서비스 업이 다수 분포

☑ 청년 로컬창업*,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기회

- 최근 로컬 지향성 등 청년 세대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청년 로컬창업 증가 추세
-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 복원·강화에 기여하고, 청년층과 창업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인구 확보 가능

로컬창업이란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필요

-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있어 청년 로컬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로컬창업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수급·매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교류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출처: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의 4대 핵심 요인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 및 완화 방안 마련

- (혁신·사람) 혁신·청년 기반의 지역과 산업고도화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형 지역에서 경제적 순환과 인구 유입이 높게 나타남
- (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광역시가 다른 지역 대비 산업적 다양성과 인구 이동 높게 형성
- (고부가가치 기업) 첨단기업 및 고부가가치 기업들의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데, 이들 기업은 인재와 산업적 다양성

- 이 높은 지역으로 집적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성장) 자연적 인구 증감도 사회적 인구가 동과 관련이 깊어 중심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생산성이 낮아 인구 유입에 이어 경제 순환이 어려워지는 양상

☑ 산업과 기업 관련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및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마련

-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연관 다양성을 높이는 연관특화 산업을 육

- 성해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방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역내외 기업의 신·증설투자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지역 내 지속성장·지역혁신성장 견인
- (지역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지역대학 내 '스타트업 계약학과' 도입, 권역별 '지역 거점형 제조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인재 유입 효과 창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

최정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임연구원

지방소멸은 왜 문제일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에 비용이 발생되고, 이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독창적인 산업과 정책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었을 때 유발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중소기업에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너무 오래된 난제(wicked problem)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면 막연하게 시골 농·어촌에 인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에는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부산, 울산과 같은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해당된다.

현재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어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107개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입과 유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에서 이는 서로의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의 상황에 봉착한다. 떠나는 인구를 잡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를 유치해서 그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1 지방소멸 우려 지역에 강소기업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그러나 소위 청년들이 희망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대기업 시설을 이들 지역에 모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기존의 기업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방법이고, 여태껏 추진했던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를 강조해오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가 큰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르는 '강소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은 오랫동안 청년들이 재직할 수 있고, 입사 후 더 좋은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

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이와 같은 강소기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다.

2 지역 특화 산업 육성하고, 지속적인 창업 지원 필요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지역 여건이 결부될 수 있도록 산업분야에 대한 지역의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 인프라의 조성 외에도 창업하려는 이들에게 창업 분야의 선정, 기술의 습득, 판로의 개척, 시장정보의 동향 제공 등이 강소기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지면 어려워지는 경영관리의 다양한 방식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3 지역 강소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취업자에게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을 취업자가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취업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알려 주고, 기존 재직자의 '워라밸' 등을 정확히 제공한다면 취업시장에서의 강소기업의 인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의 관점이 정주민구를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지방에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향후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산업체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멀리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순간이다.



(주)제아이엔지

세계 1등 향하는 수소전문기업, 지역산업성장 지원이 숨은 공신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가 독보적인 수소충전기술 개발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거리를 활보하는 등록 수소차가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9,623대를 기록했다.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229기에 달한다.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계획을 천명했다. 수소는 이제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주)제아이엔지(대표 박인규)는 이 같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선두에 서 있다. 수소충전소 EPC, 수소충전소용 디스펜서, P2G(Power to gas), 수전해 BOP(Balance of Plant) 등 수소 인프라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2022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수소 산업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 차별화 성공

(주)제아이엔지는 2018년 설립 이후 수소충전소 원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충전소 시공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다. 2021년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내 최초 액화수소 저장방식의 평창 액화수소충전소 건설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 설비시공 등 국내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P2G 현장 수습 곳에 참여했다.

(주)제아이엔지는 특히 수소충전소 통합제어시스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수소 산업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2년여 전부터 HP 타입 디스펜서, 수소충전소 통합제어 보드 등의 핵심부품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에 수소충전소 운영상태 통합 모니터링, 안전성과 예측 진단 시스템을 통합한 All-in-One PLC 통합제어시스템 연계 수소충전소용 디스펜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까지 완료했다. 이 제품은 현재 안성맞춤 휴게소에 설치돼 있으며, 수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CE 인증 획득을 진행 중이다.

12 안성맞춤 휴게소에 설치돼 있는 (주)제아이엔지의 수소충전소용 디스펜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지원으로 기술개발과 제품화까지 완료했다. 3 (주)제아이엔지는 2022년 정부 지정 수소전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4 박인규 대표는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지원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지역산업성장 지원으로 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쪽~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구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절반(42%)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소 인프라 구축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주)제아이엔지의 원천기술 확보가 반가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인규 대표는 자사가 현재와 같이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제 몫을 톡톡히 했다고 말한다. 수소충전소용 디스펜서를 자체 개발한 후 제품화 자금이 부족해 고심할 때, 액화수소 중소벤처기업 협력 육성 프로젝트 지원으로 신성장기반(협동화) 정책자금 2억 원을 확보했던 것이다.

“2년여 연구개발 끝에 결실을 볼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 난감했는데, 중진공에서 강원지역 중심의 수소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가 바로 신청했습니다. 자사 같은 신기술개발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덕분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첫걸음을 뒀습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무장한 (주)제아이엔지는 2022년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38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한화솔루션과 협업 중인 수전해 BOP 사업을 비롯해 P2G 사업, 그리고 수소생산과 저장, 연료전지시스템, 수소 충전에 이르는 전 단계를 모듈화한 PRG-모듈형 수소 충전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매출 100억 원을 향해 달려갈 계획이다. 박인규 대표는 “독보적인 수소충전기술력을 토대로 앞으로 비상할 일만 남았다”라며 성장세를 자신했다.

TIP

(주)제아이엔지가 전하는

지역산업 기반 기업의 성공전략

- 01 — 기술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
- 02 — 다방면으로 응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
- 03 — 지역과 연계해 인재 발굴 계획을 수립할 것



중진공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공모



중진공,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

문제는 일자리야!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이 지방소멸을
막는 비밀병기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산업을 키우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부산일보

23.4.13 보도

'지방'이 싫어서?...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떠나는 부산 MZ

-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지역 이동 요인 중 압도적 1위는 일자리 (42%). 주거(17.6%) 가족(15.5%) 등과 비교해 2~3배가량 많아
- 장려금으로는 청년 마음 못 잡아, 지역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 변화의 초점은 청년이 아닌 지역 기업과 기업 생태계에 맞춰져야 한다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뭐예요?

- 정부가 지역인구감소 대응·문제 해결을 위해 '22년 8월에 마련된 기금으로 인구감소 지정지역에 10년간 1조원씩 총 10조원 지원
- 공원, 관광, 교육사업 등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H/W, S/W) 구축에 투입

잠깐! 이런 연구결과도 있어요

- '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여효성 박사)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생활서비스 제공 인프라(기반시설, S/W) 중 지원센터건립 투자보다는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육성, 신규 사업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매칭,
혁신성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지역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 '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과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협업 모델 발굴
- 공모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과제를 수행할 지자체 13곳 선정
- 행안부와 '23년 협업 성공 모델을 도출하고, '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모델 예시

지자체는
첨단 바이오기업
단지를
구성하Go!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바이오기업
입주 공간을
구축하Go!

중진공은
바이오기업에
정책자금, 기술지도,
특히, 사업화 등을
지원하Go!

중진공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공모



슬기로운 중진공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공모'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공모란?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방안 발굴
- 지자체에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성장·유치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기획·지역선정·사후 관리까지 공동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공장, 공유사무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중진공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 정책자금 등 지원,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컨설팅 제공

[예시]

구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계획	청년창업 상상허브 (소멸대응기금)	예비창업자 지원 (혁신창업스쿨)	청년전용창업 용자 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청년기업 초기 사업화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센터 건립 전문가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전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초기 원부자재 구매 인건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 인력 개발 교육 사업화, 시제품 제작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총 매출증가액 50억원, 지역 고용창출 40여명 달성 기대 → 2년간 10개사, 연 평균 20여명 창출 목표 			

세부 내용은?

- 공모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연계하고자 하는 지자체
- 선정규모 총 13개 기초·광역 지자체(지자체 간 협업 시 우대 가점 부여)
- 선정기준 기금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선정된 과제 대상에 부처 간 협업 지원
 - (중기부)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사업 우대 지원, 기초지자체와 MOU 체결
 -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공모 전/후 컨설팅 지원
 - (행안부) MOU체결 지자체 기금평가 2점 부여, 선정지자체 연계항목 평가 우대

플러스 지원정보



정부부처 지원정책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 ① 2027년까지 주축산업 분야 280개 기업, 미래 신산업 분야 20개 기업 등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대표기업 300개 육성
- ②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 조성,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네트워크론' 도입, 글로벌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
- ③ 구조혁신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지자체·지역 혁신기관 협력의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지역성장



지역의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5대 프로젝트 선정

- ① 지역의 중장기 혁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경제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신규 선정
- ② 경북·대구(이차전지), 경남·울산(첨단모빌리티), 광주·전남(인공지능), 충남, 전북(첨단바이오) 5개 프로젝트 선정
- ③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55억원(지방비 별도, 20% 이상) 지원, 타 정부사업과 연계 협력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산업 #지역혁신성장



지방정부-중앙정부 하나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

- ①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추진
- ②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 통합계획 추구,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
- ③ (혁신성장)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이전, 특화형산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 (기회균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여건 확충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마을'

- ①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을 신규 조성해 청년 창업과 청년 인구 유입
- ② 세종시(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12곳 선정, 첫 해 사업비 2억원 지원
- ③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등의 시범 프로그램 진행, 지역자원 활용 일거리 실험 및 유희공간 활용 등을 통해 지역 활력 기대

#행정안전부 #지역활력 #지역청년창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3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① 신청기간 : 4월14일~5월10일
- ② 신청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③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온라인 신청
- ④ 문의 : 중진공 ESG진단기술처(055-751-98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레저장비산업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

- ① 신청기간 : 1월16일~5월31일
- ② 신청대상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 ③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www.exportvoucher.com/shipping) 온라인 신청
- ④ 문의 : 중진공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플러스 지원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3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풀필먼트 연계마케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플랫폼별 프로모션, 풀필먼트 이용료 할인, 배송료 할인 등 지원

- ☑ 신청기간 : 4월7일~8월31일
- ☑ 신청대상 : 동 사업 지정 플랫폼(쇼피코리아, 알리바바코리아, 이베이재팬 등) 내 입점하여 활동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온라인수출처(1522-70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이용 기업 모집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지원 및 개방형 스마트워크센터 제공 (12개국 20개소 267실 운영)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 ☑ 신청방법 : 중진공 GBC 예약시스템(gbc.kosmes.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055-751-9674,967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23년 지역기반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사회·환경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소셜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 지원

- ☑ 신청기간 : 4월12일~5월1일
- ☑ 신청대상 :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충남 소재 (예비)창업자
- ☑ 신청방법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메일(sv@ccei.kr) 신청
- ☑ 문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041-536-781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벤처기업



2023년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tand-up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집 지역 소재기업의 위기징후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해 맞춤형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강원지역 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강원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사전 확인)
- ☑ 신청방법 :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이메일(idd@gwtp.or.kr) 신청
- ☑ 문의 :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033-248-5628)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으로 사업장 이전 및 울산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임대료 등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내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술강소기업
-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 방문접수
- ☑ 문의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052-229-3584)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블록체인 기업 불모지역에 블록체인 기업(스타트업) 발굴과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 신청기간 : 4월10일~5월10일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 신청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cont.kisa.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481)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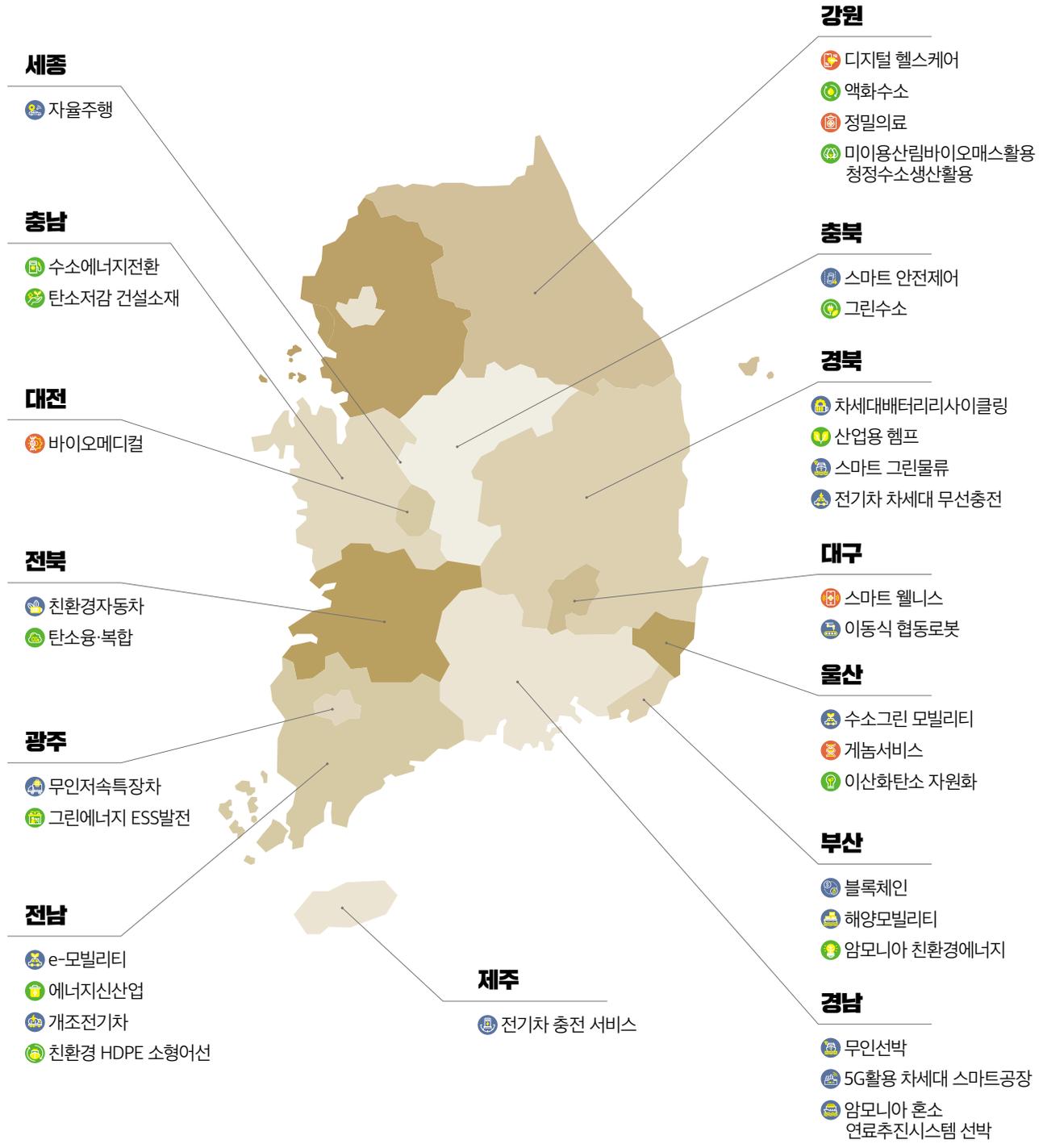
지역산업을 콕! 집어 쏙! 키워주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 특구란?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운영

-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용
- 시행(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34개의 특구 지정, 166개의 규제특례 부여



핫템꿀템! 지방소멸 위기극복 솔루션



SOLUTION 01

지역기업 생태계 조성 + 일본 사바에(鯖江)

사양산업지역에서 강소 제조 도시로 우뚝

B E F O R E

- ⊙ 저가의 중국 제품에 밀려 사바에 주요산업인 안경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지역경제 침체

A F T E R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 안경산업을 고도화하여 변신에 성공

- ⊙ 산·학·연·관·금(금융)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협력하고 자립형 생태계 조성
- ⊙ 세계 최초로 티타늄 안경테 개발, 일본 내 안경테 80%, 세계 안경시장 5% 점유
- ⊙ 안경산업으로 축적된 금속가공기술을 의료·항공 분야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
- ⊙ 25~34세 청년인구 증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일본 내 가장 높은 지역(약 630만 원)으로 나타남

SOLUTION 02

지역 스타트업 육성 + 강원도 정선·태백·영월·삼척

폐광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넥스트 유니콘 스타트업 거점을 꿈꾸다

B E F O R E

- ⊙ 국내 석탄산업의 해커였던 정선·태백·영월·삼척 석탄산업 쇠퇴로 경제활동 위축 및 인구 급감

A F T E R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폐광지역으로 청년 스타트업을 이전·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 ⊙ 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
- ⊙ 2019~2025년까지 20여 개의 청년 스타트업을 정선·태백·영월·삼척 폐광지역으로 유치 목표
- ⊙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이전보조금, 정책자금·투자 연계지원, 세제 등 지원
- ⊙ 2022년 기준 ㈜키더허들, ㈜브이엠이코리아 등 13개사가 이전 완료 및 이전 준비를 통해 지역 인재 채용, 지자체 협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SOLUTION 03

미래산업 전환 + 스웨덴 말뫼(Malmo)

쇠퇴하던 조선업 도시가 신산업단지 메카로 변신

B E F O R E

- ⊙ 지역 주력산업이던 조선업이 불황에 접어들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다수 인구 타지역으로 이주

A F T E R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 계획을 수립해 지식기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

- ⊙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을 오갈 수 있는 7.8km의 외레순(oresund) 다리 건설, 코펜하겐으로 출퇴근하는 덴마크 사람들이 물가가 싼 말뫼로 이주하며 인구 증가
- ⊙ 조선소 부지에 초고층 빌딩 터닝 토르소를 건축해 IT산업 인큐베이터 조성, 말뫼의 랜드마크로 발전
- ⊙ 태양열 지열 시스템, 조력발전시설 등을 활용한 친환경 뉴타운 개발
- ⊙ IT 스타트업 단지, 식품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등 3개 신산업단지로 발돋움

SOLUTION 04

지역혁신 + 독일 루르(Ruhr)

관광지역이 독일 최고의 전시문화공간으로 진화

B E F O R E

- ⊙ 석탄·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며 1986년 다수의 탄광 폐쇄, 10년간 방치된 인구 급감

A F T E R

지역혁신 활동을 통해 폐산업시설 지역이라는 특성과 역사가 깃든 전시문화 지역으로 재탄생

- ⊙ 보존과 지역 재생을 위해 재단 설립
- ⊙ 마스터 플랜(8년)을 수립해 강도, 탄광 보일러실, 석탄가공공장 등을 루르 박물관, 레드 닷 디자인 박물관, 수영장, 자연산책로 등으로 개발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연평균 150만 명의 관람객 방문
- ⊙ 2016년 기준 50개 창조경제기업 입주, 직간접 1,350개 일자리 창출

Hot! 키워드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줘요

K칩스법

-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시행,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 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12년 만에 재도입
- '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 대상
-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1→3%), 중견기업(5→7%), 중소기업(10→12%)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으로 상향
-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공제



40조 '꿀잠'을 잡아라

슬립테크

- '슬립테크(Sleep-tech, 수면과 기술의 합성어)'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급부상
- AI, IoT,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 고도화된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 양질의 수면을 돕고, 수면 장애를 예방·치료하는 기술을 의미
- 세계 슬립테크 시장은 '26년 40조원 대까지 성장이 예상되면서 스타트업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까지 나서 공략 중
- 수면 중 숨소리를 분석해 다양한 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슬립, 개인 맞춤형 디지털 수면솔루션 앱을 선보인 무니스, 음향과 수면유도 기체를 활용한 수면 솔루션을 개발한 닉스 등의 슬립테크 중소기업 두각



중국의 규제 보복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규제를 추진 중이어서 세계 경제 긴장
- 희토류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풍력발전기, 항공기, 로봇,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에 폭넓게 사용
- 중국의 희토류 자석 기술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해, 수출 금지가 현실화하면 자체 제조기업이 없는 국가는 중국에 종속
- 향후 가격인상, 수급 불안에 대비해 희토류 영구자석 내재화 필요



토종 게임사 굿즈 열풍

모코코, 쿵야

- 넷마블,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게임사들이 자사 인기 게임의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상품을 선보여 폭발적인 인기몰이
- 넷마블은 인기 게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쿵야 레스토랑즈 행운상점' 팝업스토어 오픈, 1시간 만에 한정 굿즈 매진
- 스마일게이트는 이디야커피와 협업해 자사 인기 게임인 로스트아크의 대표 캐릭터 모코코를 콘셉트로 한 팝업 스토어 개장, 연일 오픈런 기록
- 게임 굿즈 상품의 성공에 힘입어 식품, 패션 분야도 콜라보 마케팅 활용





기획재정부

IMF, '23년 세계 경제성장률 2.8%,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23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2.8% 전망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하며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 2.9%에서 2.8%로 하향 조정
- 선진국 그룹의 '2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1.3%로 지난 1월 전망(1.2%)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미국·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은 상향조정, 독일·일본 등은 하향 조정

- 신흥국·개도국 그룹은 3.9%로 지난 1월 전망(4.0%) 대비 소폭 하락, 중국은 1월 전망치를 유지하였으며 인도·브라질은 하락, 멕시코·사우디 등은 상승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1월 전망치 1.7%에서 0.2%p 하향 조정

- 이는 정부, 한국은행, 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와 유사한 수준(정부 '22년 12월 1.6%, 한국은행 2월 1.6%,

KDI 2월 1.8%, OECD 3월 1.6%)

올해 세계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Rocky Recovery)으로 평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유지 권고

- 러·우 전쟁, 경제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에 이어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이 위기요인
-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함

국제금융센터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2023년 2월 말 기준)

세계(+0.2%p ↑): 중국 등의 경기 호조로 세계경제 전망은 추가 개선되었으나, 주요국의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금융불안·금리인상 여파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증대

- 미국(+0.1%p ↑): 상반기 성장은 예상 대비 양호하겠으나 제조업, 고용 측면에서 경기둔화 신호 상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관련 불안은 진정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신용여건 위축 리스크는 잠재

- 유로존(+0.1%p ↑):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예상 대비 양호한 경기심리가 지속되었으나 하반기부터 통화긴축 여파 본격화 우려, 근원 물가*의 기조적 강세로 ECB(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지속 전망

근원 물가란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를 의미

- 중국(+0.3%p ↑): 집단지역 조기 달성에 따라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수출 위축, 부동산 부문·대외수요 회복 지연, 승용차 시장 전년 대비 위축 등이 리스크로 잠재
- 일본(-):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재개에 따른 호조가 예상되나 주요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외수요 부진이 지속될 소지가 있음

KDB미래전략연구소

최근 아세안-5 경기 동향과 시사점

코로나19가 시작된 '20년 아세안-5(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경제는 국경봉쇄, 이동제한, 내수 및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산업생산이 둔화되며 역성장

'23년 아세안-5 경제는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국내소비 및 관광업 회복, 해외 자금 유입 확대,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 기대되나,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등이 성장을 제한할 전망

-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확대, 국유기업 개혁 지속, 수출 호조,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 증가 등으로 아세안-5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6.2% 전망

- (인도네시아) 내수 회복, 주요 수출품(석탄, 니켈)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5.0% 전망
- (말레이시아) 관광업 회복, 가전 및 전자제품의 수출 증대로 4.4% 전망
- (태국) 관광 등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3.7% 전망
- (필리핀) 외국인 투자 촉진, 민간소비 회복, 관광업 회복으로 5% 전망

아세안-5는 한국의 교역·투자의 중요한 대상국이자 한국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22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의 12.3% 차지
-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아세안-5 진출 벤치마킹,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력 강화 추진 필요

Monthly 경제 동향



한국 은행

2023년 3월 금융시장 동향

- 국고채금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 미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위험회피심리 강화, 장기금리 큰 폭 하락에 따른 단기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 코스피는 미 연준 긴축 강화 우려, SVB 사태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주요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유인 부각 등으로 큰 폭 반등
 - '23년 3월 중 은행 가계대출('23.2월 -2.8조원 → 3월 -0.7조원)은 감소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업대출(+5.2조원 → +5.9조원)은 증가폭 확대

단위 : 조원

<기업 대출 추이>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국제 금융센터

3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주식) 세계주가는 연초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가운데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고조와 금리 상승으로 약세 전환(1월 말 대비 전세계 -0.3%, 미국 S&P -0.8%, 유럽 +2.4%, 신흥국 -2.7%)
 -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하락 환경과 통화정책 긴축 중단 기대가 주가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나, 밸류에이션 부담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 큼

* 밸류에이션(valuation)이란 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해 내는 기업가치평가

- (채권) 미국 장기금리(10년)는 잇따른 물가지표 서프라이즈 등으로 연준이 정책 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 (3.95%, +44p)

- 장기금리는 당분간 노동시장과 물가지표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외환) 미국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및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강세 (+2.4%). 엔화는 신임 BOJ(일본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완화 유지 시사로 약세(-4.2%)

- 미국의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예상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 기조 유지 전망

KDI

4월 경제동향

- 금융시장은 안정 기조이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경기 부진 지속
 - 제조업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평균가동률(70.8% → 68.4%)이 하락하고 재고율(120.8% → 120.1%)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위축
 -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대부분의 품목이 부진하며 감소세 지속, 3월 수출(-13.6%)은 2월(-7.5%)보다 감소폭이 확대되며 부진 지속, 특히 '23년 1/4 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0% 감소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상승(2월 90.2→3월 92.0)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 지속
 - 자동차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도 확대되는 등 소비는 부진 완화 양상
 - 설비투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등 제조업

경기 악화로 부진 지속

- 노동시장은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도 완만해지는 등 고용 둔화 흐름이 가시화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반영으로 상승세 둔화

-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이 반영되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해외은행권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상존

- 세계 제조업 생산과 상품교역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으나,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업 심리는 빠르게 회복

- 생산과 물류 등 공급 차질이 완화되고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도 파급되면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점차 하락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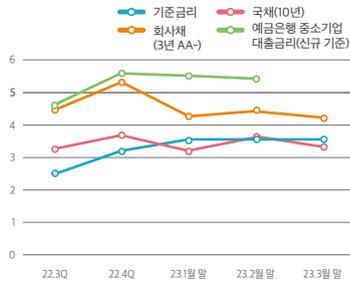
금융·실물경제지표 모니터링



금융

단위 : %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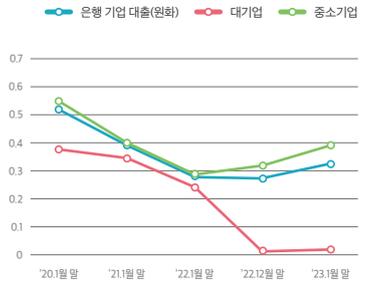
단위 : 조원

<기업 대출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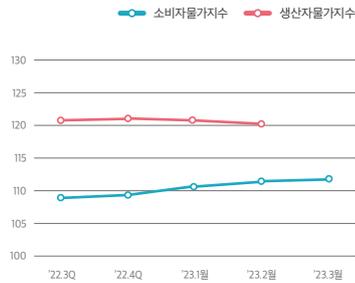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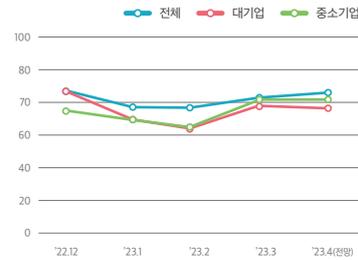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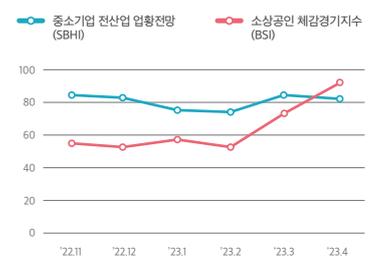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업황실적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황전망 경기지수>(SBHI)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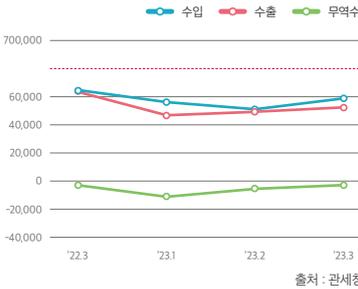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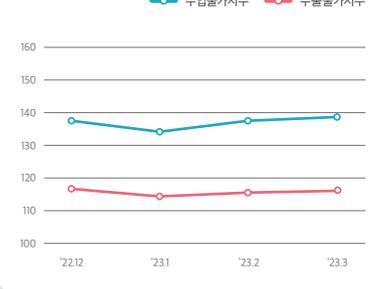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수출입실적 및 무역수지> (통관기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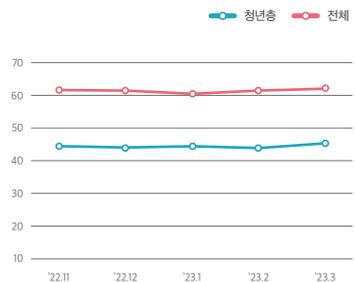
<수출입물가지수> (원화기준)



고용

단위 : %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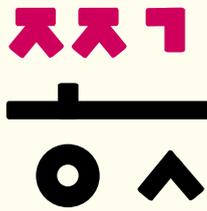
<실업률>



참고자료

1.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2. e-나라지표
3. 한국무역협회-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4. 관세청-수출입 무역통계
5. 통계청-통계분류포털
6. 국제금융센터-경제금융지표
7. 지역 예비유니콘의 현황과 정책 과제(산업연구원)
8.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한국은행)
9.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한국고용정보원)
10.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필요성(KBIZ중소기업연구소)
11. 지방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국토연구원)
1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산업연구원)
13. IMF, '23년 세계 경제성장률 2.8%,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기획재정부)
1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국제금융센터)
15. 최근 아세안-5 경기 동향과 시사점(KDB미래전략연구소)
16.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국제금융센터)
17. 금융시장동향(한국은행)
18. 경제전망(KDI)
19.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국제금융센터)

2023.05 VOL.20



발행일

2023년 5월(통권 제20호)

발행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정책연구실

기획

규제정책연구실 황호연, 김혜은, 홍정원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